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송됩니다. 목요일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수요성경공부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줌으로 할지 유튜브로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4.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세미나

4월 14일(주일) 애찬 후에 친교실에서 갖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세미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주 (3/31)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률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2,71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영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5:27-32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부르러 왔노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4월 14일	4월 21일
강민선	윤하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부활절메시지 :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본문 : 엡4:17-26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떠드는 것은 한낱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교만의 모험일 뿐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작음을 폭로하십니다. 우리의 작음이 그 분앞에서 폭로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이 우주만물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먼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의 증거로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시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알수도 만날 수도 없으니 죄와 사망의 몸으로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하늘로 향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수를 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이제는 질그릇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 보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다시는 죄의 유혹을 쫓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며, 그 은혜가 보배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그릇이 만들어 내는 초라함과 가난함의 절망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오늘 바울의 권면은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옛사람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새사람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때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이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